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종촌동 지역적 특이성의 조사를 통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 간 조화의 방안 제안

2016. 10. 22

백민우, 신민주, 오은수, 윤이성, 이강준, 이호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종촌동 지역적 특이성의 조사를 통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 간 조화의 방안 제안

백민우, 신민주, 오은수, 윤이성, 이강준, 이호진

1. 탐사의 필요성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에 공식 출범한 우리나라의 첫 특별자치시이다. 그 관할 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을 포함하여 공주시와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서울 면적의 약 77%로 원래 위치하고 있던 연기군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가 될 세종시를 탐사하면서 세종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탐사를 진행하였다.

대중교통의 부족, 불친절한 서비스, 문화시설의 부족 등 현재 세종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은 부분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소가 가능하다. 아직 세종시는 신청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외부 인구의 유입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세종시는 아직 세워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21만 884명이며 2030년까지 50만 명이 목표이다. 위의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 많이 입주하고 거주하게 되었을 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하게 공급도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업이 세종시에도 발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인문자연탐사에서 세종시 자체가 아닌 세종시에 사는 '사람'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세종시에 있는 지명들이 순우리말로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의 대표적인 반례가 나성동과 종촌동이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 새롬동 등의 이름을 전국 공모로 하여 순우리말로 정하고 LH 공사에 의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을 및 시설 명칭부여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나성동과 종촌동의 이름을 보면 羅城洞, 宗村洞으로 아직 한자 이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제 시대의 잔재로 남겨져 있는 이러한 이름이 어째서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것이며 실제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사는 신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해소할 타협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탐사 과정

가. 주제 찾기

1) 세종국립도서관

우리는 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외에도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했지만, 많은 주제의 토론의 마지막은 인구의 수가 증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직은 인구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그 목표점에 도달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생각하였던 주제를 조사하고 새로운 주제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밀마루전망대

세종도서관에서 주제를 마땅한 주제를 찾지 못한 우리는 세종시를 내려다보면서 주제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세종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에 가게 되었다. 역시 세종정부청사 외에도 시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관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과 조감도도 있어서 많은 영감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다. 도서관에서의 토의 결과 많은 문제들은 인구증가와 함께 해소될 것이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 자료조사

자료 조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의 방문조사, 세종국립도서관에서의 자료조사로 진행하였다.

1) 설문지 조사

세종특별자치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2가지 방법으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세종맘 카페, 세종시닷컴 (네이버 카페)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표본 대상은 세종시 전 주민이고 설문 일시는 2016년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한솔중, 종촌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31개의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 두 학교는 논란이 되는 두 동의 가장 큰 학교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설문조사 문항들이다.

질문	답변 유형	질문 선정 이유
1. 연령대?	객관식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정보
2. 현재 어느 구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객관식	
3. 종촌동, 나성동의 이름이 한자명인 이유를 알고 있었나요?	객관식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연령대별 생각에 대하여 알아봄
4. 종촌(宗村)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객관식	
5. 세종시에 구역이 존재하고,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객관식	세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문제 (세종시는 상업, 문화 등의 시설이 나뉘어져 있고 그 곳에 가야 원하는 시설들을 더 누릴 수 있음)
6. 응답자 본인은 세종시 안에서 신도시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느끼고 있나요?	객관식	세종시에 대한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모르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6-1. 만약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장문형	

표 1. 설문조사 문항

2) 세종시청 -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이은수 과장님과의 만남

나성동 중촌동과 다른 지역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른 지역들의 원주민들의 설득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증을 느껴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일반 민원실에 가니 그 당시에 계셨던 분으로,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이은수 과장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여러 질문을 물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Q1..왜 종촌동의 이름은 한자가 유지되나요?

- 본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로 결정 했기 때문.

Q2. 세종에서 원주민과 신세대 간의 갈등은?

-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도시이던 갈등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

Q3. 구역이 나뉘어지면 어떤 분열이 생기지는 않나요?

- 구역의 기준은 그 지역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즉, 역할은 특화된 것만 해당.



그림 3. 세종시청에서 담당자들과의 만남

3. 탐구 결과

1) 세종시 주요 지명과 작명 이유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청과 LH에서 나온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을 및 시설 명칭 부여 학술연구용역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역	동 명칭	명칭 이유
1-1	고운동	‘굽다’의 우리말로, 대규모 주택단지와 아파트가 상호 조화롭게 배치될 주거단지 예정지역으로 아름답고 고운 주거이미지를 강조
1-2	아름동	‘둘레가 한아름 넘치는’ 풍족한 주거지역 명칭
1-3	종촌동	기존지명 ‘종촌리’ 유지
1-4	도담동	야무지고 탐스럽게 살기 좋은 주거지역 명칭
2-3	한솔동	큰 소나무가 있는 지역
2-4	나성동	기존지명 ‘나성리’ 유지

표 2.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동, 리 명칭과 이에 대한 사유

2) 설문조사 결과

대상은 종촌고, 한솔중학교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나성, 한솔동 주민 37%, 종촌동

주민 38%, 그 외 지역 주민 25%), 10대~50대 이상까지 총 217명 대상 설문조사(10대 62%, 20대 3%, 30대 14%, 40대 18%, 50대 이상 3%) 이다.



그림 4. 설문조사 결과

4. 결론 및 제언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과 입주민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알아본 바, 세종시 주민들은 이제는 대다수가 신세대에 주민으로 종촌동 등의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한자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런 인식과 의식의 부족은 여러 차이를 만들게 되었고, 지역명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세종 알리미 제작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세종시를 이끌고, 세종시에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문화를 만들 주체들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청소년들은 그런 세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문제점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이 세종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세종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알리미에 지역의 상징성 등에 대해서 알리고 청소년 간의 network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원주민들과의 조화를 위한 기념비 제작

지금 현재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역명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 교차로에 위치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기에 그들에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기념비를 근방의 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원주민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세종시 내에서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기념지 예시

5. 활동 후기

가. 개인별 소감

오은수: 세종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이강준: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호진: 세종시가 정말 행복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다.

백민우: 세종시라는 주제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다.

신민주: 인문자연 탐사를 통해 세종시를 더 많이 알게 됐다.

윤이성: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세종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친척도 있고, 다양한 시설물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 까지 세종시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다. 2박 3일 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종시의 아름다운 길들도 걷고 다양한 건물들도 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6. 참고 문헌

- ▶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을 및 시설 명칭부여 학술연구용역, 세종시개발사업단&LH (행복-연구-2012-01-01-02)